

신체의 시학

- 움직임으로 창작하는 연극 -

The Poetics of the Body – Theater Created Through Movement –

윤지은(Yun, Jieun)*

Lecoq, J., Carasso, J. G., & Lallias, J. C. (2018). *몸으로 쓰는 시: 연극창작을 위한 교육 지침서* (유진우 역). 연극과 인간. (원저 출판 2016).

신체 움직임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는 무용 분야에서뿐 아니라 연기 교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배우 지망생들이 진학하는 연기예술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뮤지컬(노래) 혹은 무용을 특기로 시험을 보게 된다. 이후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신체 움직임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들이 연기 전공에 개설되어 학생들은 신체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교과목은 대부분 무용을 전공한 교수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기와 신체 움직임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지도해야 한다.

필자는 무용 전공자로서 연기예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기 교육에서 신체 움직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다. 연기예술학과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무용을 특기로 한 경우 대부분 움직임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나 연기에서의 신체 표현은 단순한 움직임 기술을 넘어, 창작과 연기의 본질적인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무용 전공자인 교수자가 연기 교육에서 신체 움직임 교육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중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자끄 르콕(Jacques Lecoq)의 『몸으로 쓰는 시, Le Corps Poétique』(2016)는 신체를 중심으로 한 연극창작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었다. 르콕은 단순한 움직임 훈련이 아닌, 배우가 몸을 통해 공간과 리듬을 탐구하고 서사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그의 교수법에 움직임의 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배우들에게 움직임 교육을 진행하면서 고민하는 많은 교수자에게 수업의 방향을 제안하고, 전문 무용 교육을 받은 교수자들이 각 현장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객원교수, jey0905@gmail.com

체육과 움직임 그리고 연극

자크 르콕의 시작은 체육교육학이었다. 그는 체육교육학을 전공했고, 친구들을 통해 연극에 입문하게 된다. 극단에서 배우들의 신체 훈련을 담당하면서, 그는 언제나 운동의 몸짓을 기본 언어로 삼았다고 회상한다.

“체육과 움직임, 그리고 연극, 그것은 이미 나에게 있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p. 26).”

르콕은 체육에서 익힌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극 훈련에 접목했으며, 1956년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움직임 학교(Une École en Mouvement)를 설립하여 마임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연극과 무용을 융합하기도 했다. 이후 1968년, 그는 파리 국립고등 미술대학(University Beaux-Arts)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축 공간과 움직임 교수법을 어떻게 강의에 접목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러한 다분야 간의 융합은 르콕이 움직임의 본질을 더욱 깊이 탐구하도록 이끌었으며, 그의 독창적인 연극 교육 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바탕은 지금의 움직임 연구소(Le Laboratoire E'Étude du Mouvement, LEM)가 되었다.

몸과 감각의 확장: 움직임을 통한 표현의 기술

이 책에서는 저자가 신체에 대한 탐구를 어떻게 연극창작 교육에 접목하였는지를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르콕의 학교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속에서 신체 움직임이 어떻게 탐구되고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움직임 분석을 기초로 한 움직임 기술은 즉흥연기의 주제로 이어지고 시와 회화 그리고 음악에 대한 탐구에서 신체 언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학교에서 즉흥연기만큼 중요한 과목인 움직임 분석이다. 움직임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역동성에 있다. 내 교수법에서 역동성의 기본은 리듬과 공간 그리고 힘의 조화로 구성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체 행동을 기반으로 균형, 불균형, 대칭, 교체, 보정, 행동, 반응 등의 움직임의 법칙을 인지하는 것이다(p. 49).”

그의 말처럼 움직임의 점진적인 역동성을 이해하고 단계에 따른 움직임의 기술을 알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체에 관한 주의 깊은 관찰에서 비롯되며 움직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는 결국 연극창작 교육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르콕의 “시적 몸(The Poetic Body)”

시적 몸은 저자가 주장한 신체 표현 철학의 중심 개념이다. 르콕은 신체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감수성을 표현하고, 내면의 감정을 전달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배우들에게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탐색하고, 리듬과 형태를 활용하여 의미의 형성 과정을 경험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곧 연극적 움직임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작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다.

“중립 가면(neutral mask)” 훈련과 신체 중심의 연극적 접근

르콕은 중립 가면 훈련을 통해 배우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더욱 깊이 탐색하도록 했다. 이는 배우가 불필요한 과장된 움직임을 제거하고, 움직임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으로 배우들은 신체를 자신의 순수한 표현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저자가 교육의 도구로 쓴 중립 가면은 얼굴 자체의 중립을 말하면서 평온한 신체감각을 깨워주는 균형 잡힌 가면을 말한다. 가면을 쓰면 연기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신체가 강하게 감지된다. 모든 표현은 신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순백의 백지장에 연극을 써 내려가기 위한 과정이다. 결국, 배우들은 자기 신체를 순수한 표현 도구로 만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시적인 감성을 담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그가 개발한 중립 가면 훈련과 신체 중심의 연극적 접근법은 배우뿐만 아니라 무용수, 공연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신체를 말하게 하라: 연기 교육에서 움직임의 역할

결국, 르콕의 교육관은 체육에서 출발했지만, 단순한 신체 훈련을 넘어 몸과 공간, 감각, 표현의 관계를 탐구하는 독창적인 연극 교육 체계로 발전했다. 그의 접근법은 연기뿐만 아니라 무용, 무언극, 서커스, 퍼포먼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창의적 영감을 주는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 있다.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용이 단순한 동작의 수행을 넘어 움직임 자체로 이야기하는 예술이라면, 르콕이 제시하는 움직임 철학과 신체 인식 방법은 무용수들에게 새로운 창작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즉흥(improvisation), 신체와 공간의 관계,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방식 등은 무용 창작에도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저자는 연극에서의 움직임이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정당화된 몸짓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시에서 형식적인 움직임을 배우게 하는 것은 움직임의 정당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형식에 갇히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그러므로 필자와 같이 배우 지망생을 지도하는 무용 교수자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탐구하고 표현을 끌어낼 수 있는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임을 저자를 통해 다시금 상기시키게 된다.

자끄 르콕의 『몸으로 쓰는 시』는 단순한 움직임 훈련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 감각과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연극창작 작업으로 연결된다. 이는 배우뿐 아니라 무용수들에게도 신체와 움직임의 본질적인 탐구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체를 얼마나 깊이 탐구하고 있는지 단순한 동작 수행을 넘어 움직임을 통해 메시지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필자는 이 책이 연기뿐만 아니라 무용을 포함한 모든 공연예술 분야에서 신체를 탐구하는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움직임의 본질과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고민하는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